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8. 19.(금) 06:00 < 8.19.(금) 석간 >	배포 일시	2022. 8. 18.(목)
담당 부서	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	책임자	과 장 권혜진 (044-203-4330)
		담당자	사무관 홍길표 (044-203-4334)

산업부 장관, 조선 3사 대표와 현안 및 조선업 발전방안 논의

- 조선 3사 최고경영자(CEO) 간담회 개최 -

- - 신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이하 산업부) 이창양 장관은 8.19(금) 서울에서 **'조선 3사 최고경영자(CEO)와 간담회'**를 개최하고, **조선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, 조선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**하였다.

< 조선 3사 최고경영자(CEO) 간담회 개요 >

◇ **일시/장소** : '22.[illegible] 08:30~09:30 / 서울 프레지던스 호텔

◇ **참석자** : 산업부 장관, 조선해양플랜트협회
조선 3사 CEO(한국조선해양, 대우조선해양, 삼성중공업)

◇ **주요내용** : ① 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 논의
② 신정부의 조선산업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

□ **업계에서는** 최근 수주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**인력부족은 심화**되고 있어 **인력의 적기 확보가 중요**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, 정부에 **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외국인 인력 도입 제도개선**을 건의하였다.

○ 또한, 최근 선가상승에 따른 **금융권의 선수금환급보증(RG) 한도 상향**, 국산 기술을 적용한 **조선기자재의 실선 적용 확대 등도 요청**하였다.

□ 아울러 국내 조선 3사는 **올해 2,340억원을 투자**하여 암모니아 추진 선박, 탄소 포집장치, 스마트십 데이터플랫폼 등 **무탄소·디지털전환 기술개발과 함께,**

○ **스마트 야드, 친환경 설비구축** 등 **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한 시설 투자를 확대할 계획**이라고 밝혔다.

□ 이 장관은 **조선업계가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**할 수 있도록 **선제적·적극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당부**하면서, **정부도 인력확충·기술개발·생태계 강화** 등 **3대 분야의 정책에 집중**하겠다고 밝혔다.

○ **(인력확충) 조선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**하기 위해 ①**생산인력** 확충, ②설계·엔지니어링 등 **전문인력** 양성, ③**외국인력** 도입 제도개선 등 **종합적인 인력 확충계획**을 수립할 예정이다.

○ **(기술개발)** 정부와 업계가 기술개발을 통해 ①액화천연가스(LNG) 운반선·추진선 등 **저탄소선박 및 주력 선종의 초격차를 유지**하고, ②수소·암모니아 등 **무탄소선박** 및 **자율운항 선박 시장을 선제적으로 대응**할 계획이다. ③또한, 해상풍력 하부구조물, 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**미래 잠재력이 큰 사업영역의 지원**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.

○ **(생태계 강화)** ①조선소 및 기자재업체까지 생산공정의 **디지털 전환**을 촉진하여 **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**, ②수주물량 이행을 위한 금융애로 해소 등 **중소조선사의 경쟁력 제고**와 함께, ③**기자재 기업**의 설계·연구 개발(R&D) 역량 등 **기술경쟁력을 강화**하겠다고 밝혔다.

□ 이 장관은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조만간 「**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**」을 마련할 예정이며, **현재의 호황기**를 놓치지 않고 **국내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**할 수 있도록 **정부와 업계가 함께 전략을 마련**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윤유진 / 홍보담당관 / 2022-08-24 10:22:53